제475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81. 12. 27 (1)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기도서 P. 233

제1독서(집 회 3, 3—7. 14—17a)
제2독서(골 로 3, 12—21)
복 음(루 가 2, 22—40)

숲정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 론

가정(家庭)과 나(我)

현 유 복 신부

가정은 그 본질상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이고 사회적인 기초공동체인 동시에 하느님 나라가 먼저 실현되어야 할 작은 교회입니다.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며, 가정을 교회의 가정적 성소(聖所)로 삼을 때 가정은 그 받은 바 사명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신자 가정들은 특별히 "그들의 전(全) 생활을 통하여 복음에 충실하며, 그리스도교적 결혼생활의 모범을 보여 준다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장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된다"고 천명하고 있읍니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11)

그런데 복잡한 현대문명 속에 처한 우리네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배우자를 선택 할 때부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중 얼마만큼의 시간과 관심을 가족들에게 할애해 왔으며, 나아가서는 삶을 같이 하는 가족들과 일치를 이루려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읍니까?

가정은 삶의 정거장도 아니요, 먹고 잠자는 하숙집도 아닙니다. 피를 나누었다 해서 적극적인 노력—인내, 이해, 용서—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또한 두툼한 월급봉투나 명예스런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 상호간에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지극히 사소한 기쁨이나 슬픔이라도 나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곳이 가정이요,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라도 서로 이해,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어야 할 것입니다.

불화나 불신 속에서 공포의 소굴로 변해버린 가정은 대개 그 부모에게 탓이 있읍니다. 가난과 여유없는 바쁨의 탓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독신자의 생활을 찾으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삭막한 마음의 탓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기 위주의 독신생활을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느낌대로만 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만을 누리고자 하고, 가족들이 보는 T.V 채널까지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느낌 그리고 기분을 완강히 짓밟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가정은 없는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귀여운 자녀들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곧 하느님이요, 나 자신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가족중의 한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서 성가정을 이루십시오.

〈용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해가 바뀌는 문턱에 이르르면 갖가지 감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국내외의 많은 사건들이 준 충격이 그러하고, 혼자서 한숨을 토해야 했던 개인적인 일들이 또한 그러하다. 기쁨의 감격보다는 아픔의 회한(悔恨)들이 더 큰 비중을 갖고서 말이다. 그래서, 아직도 다 풀지 못한 숙제들—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사고방식·아직도 눈감고 아웅하는 비리(非理)들·고개를 숙일줄 모르는 사회악·특히 한국의 경제문제·폴란드 사태…—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 보고 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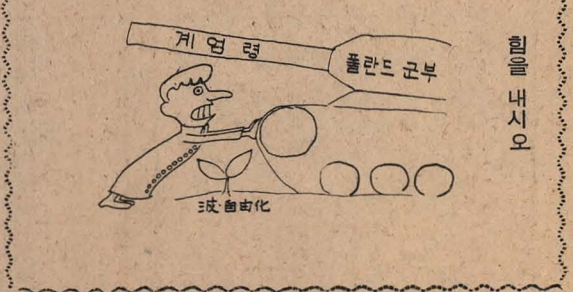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아픔(問題)을 고통(逃避)으로만 끝내려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함께 고민하고, 또 힘을 모아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땀과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던 것도, 그 길에의 동참 행렬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세사를 비롯한 인류의 역사가 다 그러하였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자의 좌표를 읽어야 한다.

첫 인간인 아담은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서 하느님을 피한다.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자,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읍니다."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계속 핑계를 댄다. 아담은 여자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창세기 3장 참조)

하느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 옛날 아담을 부르시듯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지금, "예, 여기 있읍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할 시간이다. 아직도 그때의 아담처럼 핑계를 대야 할 것인가를 살펴야 할 때이다.

우리 다 함께 알찬 새해를 꾸미자!

숲정이 산책



□ 새 해 의 계 획

한 해의 성공은 년초에 어떻게 계획하고 1년동안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 해의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와 1년동안 정립된 이론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 해의 성공이 좌우된다는 말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월에는 12월까지 계획표를 작성하고 또는 나름대로 홀로 머리속에 계획을 그려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이론과 실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론이 없는 곳에 실천이 있을 수 없다. 또 실천이 없는 이론이란, 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결론은 실패밖에 없을 것이다.

한 해가 끝나가는 년말중엔 으레 지나간 날들을 반성해보고, 또다시 년초를 맞이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들을 계획하고 정립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에 분수없이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고차적인 계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고 실력에 알맞는, 실천을 수반할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심장이 한시도 쉬지않고 운동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론과 실천은 그대로 하나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문명을 구축하는 움직임이요, 행동이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론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다보면 실천속에서 또 하나의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먼저보다 발전된 이론이고 그 발전된 이론은 더욱 승화된 실천을 낳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년초에 한번 계획하는 이론적 행동지침은 우리의 일생을 마치는 그날까지도 연관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년초계획은 치밀하고 분명하게 정립되어야겠다.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제시된 82년도 우리 교회의 사목방향은 〈선교하는 본당 공동체 육성〉이다. 이에 준하여 우리 교구도 그 실천적 목표를 ① 지역 소공동체 육성. ② 본당 전례활성화 ③ 애덕실천의 조직화, 이상의 3가지로 정하고 본당이나 각 단체 나름대로 자율적인 계획하에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제 각 본당과 교구내 모든 단체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수립된 계획을 소신껏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밀물과 썰물이 겹쳐지는 곳에 풍성한 어장이 형성되고 고기가 많은 법이듯,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때, 본당과 모든 단체에 하느님 축복이 풍성히 내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욱 큰 노력을 다짐해 보자.

□ 신년시

새 해 連 禱

홍 윤 숙

거리엔 잊었던 동화처럼
눈이 내리고
눈 속에 눈같이
약속의 새해가 다시 온다
아무일도 없었던양
사람들은 조금씩 웃고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고 옷깃을 세워
돌아서 한 장의 차표를 끊는다
새해로 가는 긴 열차의 소인을 찍어
희망의 작은 짐을 다시 꾸린다.

쓰러지며 밀려나며
밀려나며 쓰러지며 우리도 간다
영혼의 벗은 살에
무시로 내려치는 천형의 챗찍
챗찍 끝에 꽃도 피고 물도 오르던
고통의 신비를 빵으로 먹고
날마다 해어지는 우리의 살은
태어나기 전부터 짝혀진 낙인
나의 주 하느님의 비밀하신 사랑의
사생아임을

주여 당신은
「고통받는 이의 고통으로
그 영혼 구원하시고
아픔으로 그 귀 열어 주시니」
내 영혼 해어진 자국마다
꽃으로 화관 엮어 씌워 주시고
바다만한 귀를 열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잃어버린 손과 발, 말 대신에
그 자리 눈물의 빈 구석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영혼의 날개 달아 주소서.

—가톨릭 신문에서

三星物產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 킹 검 Buckinghei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 율 리 안 나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 화 ② 2513
한 철 재(비오)

주단·포목(혼수·회갑옷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텐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ECCLESIA

덕진본당, 35사단 장병 위문

예수 성탄의 기쁨을 국군장병들과 함께 나누고저 덕진본당(주임 서석기 신부)에서는 지난 12월 중순경에 35사단을 찾아가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흐뭇한 한 순간을 마련했다.

덕진본당에서는 관할내에 있는 사단 신자 장병들의 믿음을 북돋우고, 특히 훈련중인 사병들을 보다 더 복음에 맛들이게 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미사를 봉헌해 왔는데 금번 해성중 '제 3젠'과 덕진부녀부, 레지오에서는 장교 부인회와 힘을 합해 떡과 빵, 과일 등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감격스러운 미사를 드리고, 정겨운 대화와 연극, 오락으로 즐거운 한 때를 이뤘다는 소식이다.

시내 여러 본당과 교우들의 보다 큰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군사목이 날로 빛을 발하길 빈다.

교회 출판물 구독 안내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요한 17,3 참조)이라고 해서 지나칠까? 성서는 필수적으로 간직하고 읽혀야 될 것은 물론 그밖에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책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러한 서적들은 중앙성당 옆 성바오로 서원을 통해 언제나 구입할 수 있고, 정기구독을 원할 때는 1년분 선불시 다음과 같다

경향잡지(월간)—1만원, 사목(격월간)—9천원, 가톨릭 소년(월간)—8천원
가톨릭 신문(주간)—1만2천원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면 주소와 송금방법을 알게 된다.

1982년도 제1회 레지오 간부 연수회 개최

1. 일　　시 : 1981년 1월 2일 11 : 00시~1월 3일 15 : 00시(1박 2일)
2. 장　　소 : 가톨릭 센타
3. 참석대상 : 꼬미씨움 산하 꾸리아, 쁘레시디움 단장과 단장 후보자 전원 참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유고로 불참할 경우에는 부단장이 참석하여 한 쁘레시디움에서 1명은 필히 참석
4. 참고사항. ① 등록시간—1982년 1월 2일 10시~11시
   ② 참가비—6천원(3천원은 Pr보조)
   ③ 지참물—성경, 공동체 성가집, 교본, 멧세라, 세면도구
5. 특기사항 : 본 연수회 기간중, 광주 세나뚜스 단장님을 모시고 8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음

연말 통계현황 및 새해 계획서 제출

어느 공동체든 한 해를 맺고 맞는데는 필히 그 단체의 정확한 통계현황과 사업계획서가 구비돼야 한다. 또한 교구 및 전국 차원의 사목현황 정리 작성을 위해서도 각종 현황집계가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본당, 단체는 조속히 준비, 연말까지 제 통계현황과 계획서를 교구에 꼭 제출해주기 바란다. (사목국)

(축) 영 명　　서석구 · 김병환 · 김기수 · 전종복 (요한)신부님 : 12월 27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코오롱 맨스타

전주특약점

(효성 맨하탄 중앙특약점)

코오롱 맨☆스타 전주특약점은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효성그룹의 맨하탄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갖추어 다양하게 변모해가고 있읍니다.

멋과 품위, 강한 개성의 코오롱 맨 스타와 효성 맨하탄은 올겨울 당신을 지켜 드릴 것입니다.

＊바바리코트 ＊톰파 ＊점퍼 ＊파카 ＊콤비 · 바지 ＊와이셔츠 ＊T셔츠 ＊넥타이 등

전주시 중앙동 3가 26(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화 ②4561

아드리아노(金敦中)

은인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갈망하던 수녀님들의 모습을 저희 본당에서도 보게 되었읍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82년 2월말경 부임할 그분들을 위하여 은인이 되어주실분들이 아쉬어 집니다. 본당신부는 은인을 위하여 1회 생미사를 봉헌하겠읍니다.

품 명	가격	품 명	가격
반상기	50,000원	찬 장	25,000원
이불웃장(2조)	100,000원	전기다리미	15,000원
책상겸상(2조)	50,000원	T.V set	100,000원
부엌용기 일체	50,000원	냉장고	150,000원
보온 물통	5,000원	상 中	15,000원

550—17 전북 김제군 금산면 화율리
수류 천주교회　주임신부 이 순 성

꽃! 꽃! 꽃! 꽃다발

—꾸르실리스타—

진 선 미 꽃 집

(센타에서 직접 제작, 판매 봉사)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또(덕배) · 이 마리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신년 교례회는 각 본당별로 있읍니다
1. 사제 간담회 : 82년 1월 4일 오전 10시(교구내 전체 신부님)
2. 농촌지도자 연수회 : 일시—12월 28일〈월〉 오후 1시~31일
   장소—가톨릭 센타, 대상—농민, 참가비—4천원
3. 꾸르실료 : 일자—(여성) 1월 4일~7일, (남성) 1월 9일~12일, 각 오후 5시 30분
   신청마감—12월 29일까지

(중앙)

주 임 ⑤ 17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사 ⑤ 1711 보좌 신부 유 종 환
수·유 ⑤ 1712 보좌 신부 박 인 호
사도 회장 박 광 문

1. 성경읽기 : 요한 1서1장~2장, 루 가2장, 요한 1장
2. 방지거 삼회 : 오후 2시 강당
3. 평화의날 미사 : 1982년 1월1일 미사는 아침미사 없고 10시30분 미사입니다
4. 어린이 영세 : 1982년 1월29일〈금〉 10시 30분 미사후
5. 영세 : 12월 20일187명 탄생, 축하합니다
6. 판공 : 1,125명이 가을 판공을 보았읍니다
7. 연탄 봉헌 : 현재 1,831개 접수, 아직 봉헌하지 않으신분은 연말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8. 성탄제대 꽃 및 초 봉헌 : 26가정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77,081원 특별헌금 : 박일순(1만원) 김창섭(1천5백원), 김희관(6천원), 김모니카(1만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이 홍 재

1. 송년특별 미사 : 31일〈목〉 밤10시, 다같이 참여하여 한해를 반성해 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2. 신정 특별미사 : 1일〈금〉 오전10시, 미사후 (신년 교례회)본당을 위해 헌신하신분들의시상식이 있읍니다
3.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요한 묵시록 전체, 제2차 성경읽기가 이번주로 구약1회신약2회모두끝났읍니다
4. 교무금을 완납 합시다 : 한해가 저물었읍니다 하느님앞에 부끄럼없이 새해를 맞이합시다
5. 감사합니다 : 박세욱씨께서 제대초값 (2만원)희사

□ 지난주 봉헌금 : 334,39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81년 송년미사 : 31일 저녁7시
2. 각분과 위원회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3. 82년본당 운영방안 : ① 본당단체 육성교육, ② 봉헌정신함양, ③ 1인1단체 가입, ④ 1세대 1인입교자 봉헌, ⑤ 모범적인 본당만들기, ⑥ 적극참여하는 신자상 적립
4. 82년 사도회 모임 : 1월 3일공식 미사후 빠지지 마시고 구역장, 반장님 참석 하세요
5. 성사 못보신분 : 매미사 전후에 성사드립니다
6. 교무금 미신입 하신 세대는 년내에 신입하셔요
   미신입 하실경우 사도회에서 일괄 정해드립니다
7. 사도회 각 분과 임원
   전례—이남연, 선교—진홍철, 재경—소병을, 봉사—하근도, 감사—임종섭·김은식, 교육—박용철, 지도위원—유훈석·백환기·엄기섭·유제상

□ 지난주 봉헌금 : 594,02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김 희 남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반회장 회의 : 오늘 저녁미사 후, 지난 20일에 못나온분과 사도회 임원들 꼭 모여주시기 바람
2. 송년회 : 29일〈화〉 저녁7시, 대상—사도회임원·고문 감사·분과위원 및 레지오단원(연총침목회 겸함)
3. 신년 교례회 : 1월1일 오전11시 미사, 회비—3천원 중식제공 모든 신자들은 30일까지 사무실에접수바람
4. 82년도 봉헌금 29%인상 : 십일조 정신으로 양심껏 정성드려 봉헌합시다
5. 주일학교 : 매주일 오후2시, 어린이 미사 3시
6. 첫첨례 7 : 1월 2일〈토〉 저녁7시
7. 축! 영세 : 45명(유아 포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8. 전례담당 : 전례해설—유덕열, 독서①서남준②오영수

□ 지난주 봉헌금 : 502,6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축! 영세자 55명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평화의날 행사 : 82년 1월1일, 10시평화미사 및 신년 교례회
3. 사도회장님 이취임식 및 사도회 임원인사 : 다음주 (82년 첫주일)공식 미사후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축! 본당 주보축일 및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 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 행사 있읍니다
6. 학생회 정기총회 : 27일 학생미사후
7.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정만성 ② 이정빈

□ 지난주 봉헌금 : 201,910원 교무금 : 1,208,600원

(숲정이)

전화 ⑤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수·유⑤9567 사도 회장 김 수 겁

1. 본당 공동체의해에 따라 신년 교례회 : 1월 3일 공식미사후
2. 새로 영세받는 형제자매 축하 합니다
3. 사도회 임원·구역장·반장·각 단체장 : 12월 31일 7시밤 망년미사에 참례합시다
4. 차주미사 참례 : 안내—권은순·송설자·최윤희·김귀선·김숙현·임동례
5. 차주전례담당자 : 해설—이철수, 독서—①이원일②이종국, 기도—이귀철

□ 지난주 봉헌금 : 568,300원

(전동)

전화 사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병 엽
사무 ③3222번 보좌 신부 박 병 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사도임원 각 분과위원장 개편
   재정—양현홍(이래내오), 봉사—이덕수(유스티노), 전례—이주철(야고버), 선교—박종구(바드리시오)
2. 성화회 임원개선 : 회장—김창신(가별), 부회장—이덕수(유스티노), 총무—양현홍(이래내오)
3. 송년 및 새해미사 : 31일 밤11시40분(아침, 저녁미사 없음)특별헌금
4. 주일학교 자모회 : 주일학교 자모님들 간식 선물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5.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2시
6. 동결령 해재(교구비완납) : 협조해 주셔서감사합니다
7. 판공성사 못보신분은 빠른시일내에 보시기 바랍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헌재②김동연
   공식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신일균②이영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41,3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임시 사도회 : 오늘밤 7시30분 미사후(회장단·고문단·감사·각분과위원장)
2. 기사회 : 1월2일〈토〉 오후2시
3. 신년 교례회 : 82년 1월1일 10시 미사후 많은 교우와 사도회 차장급 이상 간부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 교무금 신입못히신분은 사도회 결정에 따르십시오
5. "본당 공동체의 해"를 맞아 전신자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6. 1가정 1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교구 공동체에 일치를 이룹시다
7. 메리엔 수녀님 4년 소임마치고 떠나셨읍니다 : 감사합니다
8. 본당 판공에 수고해주신 3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8,460원 교무금 : 807,000원
13주일 봉헌금 : 145,565원 교무금 : 854,000원

✤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7440